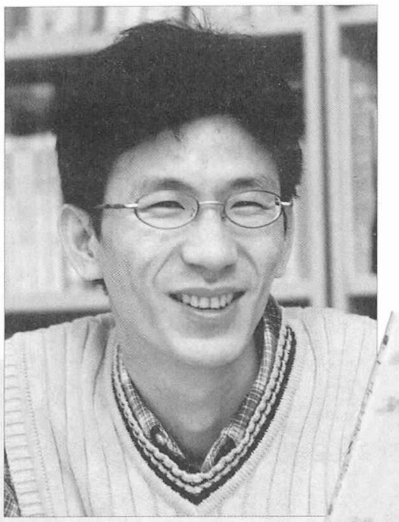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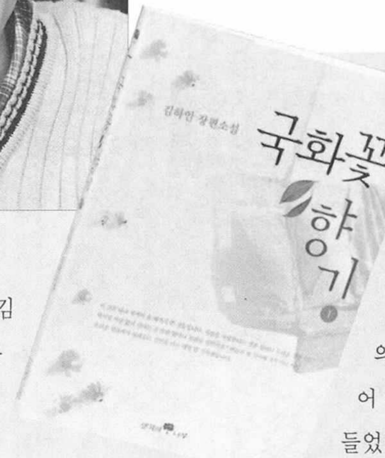


김환기씨



새로운 남성상 구현한 우리시대의 '순애보'

《국화꽃 향기》 기획한 김환기씨

《국화꽃 향기》는 그야말로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다.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대중들의 잠재욕구를 파악해 작품에 반영했다. 특히 감각적인 문체와 영상적인 측면이 강조된 구성방식은 이 작품의 또다른 성공요소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의 성공은 파격적인 성담론에 부담을 느낀 독자층이 의외로 두텁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5월 초였던가요. 어느 날 김하인씨가 판타지 소설을 한편 써왔더라구요. 하지만 우리 출판사에서 판타지 소설을 내본 적이 없고, 판타지 소설이 우리 출판사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원고를 반려하는 대신, '우리 시대의 순애보'를 그린 소설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수한 사랑 강조한 기획소설

《국화꽃 향기(전2권)》(생각의나무)의 기획자 김환기씨(32, 생각의나무 기획팀장)는 소설의 탄생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국화꽃 향기》의 기획에는 박광성 사장의 기여가 컸다. 일산에 사는 박사장은 러브호텔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가정의 위기와 성적 타락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사랑을 그린 소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회에서 만나 순수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과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등 실제인물을 미주와 승우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갈등구조가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모든 등장인물을 착한 사람으로 설정해 순수성을 강조했죠."

숙의를 거듭한 끝에 기획안을 확정하자 다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원고를 쓰고 책을 펴내는 데까지는 대략 한달이 걸렸다.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책 제목은 가을 시장을 겨냥해 '국화꽃 향기'로 정했다.

6월 초에 책을 내고 처음 3개월 동안 신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광고공세를 폈다. 총매출액의 60~70%를 광고비로 쏟아부어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다. 매출액의 15%를 광고료로 책정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자신있었던 거죠. 우선 문학시장의 잠재력을 믿었고, 이 소설의 독특한 남녀구도가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여성과 다소 여성화된 남성이라는 구도가 기존 소설들과 다른 점이었던 거죠. 승우는 새로운 시대에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의 구현이었습니다."

영상화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 펼쳐

《국화꽃 향기》의 인기 요소는 또 있다. 다분히 감각적인 문체와 한편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 구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주안점을 둔 부분이다. 처음부터 영화・음반 제작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영화 시퀀스 나누듯 구성했다. 원고 수정 단계에서는 영상적인 측면을 좀더 강화했다. 시나리오 작업도 병행하는 작가라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국화꽃 향기》는 출간 3개월만에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더욱이 지난 9월 〈KBS 9시 뉴스〉에 순수한 사랑을 다룬 《국화꽃 향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과 비슷한 주제의 TV미니시리즈 〈가을 동화〉 방영 소식이 함께 보도되면서, 베스트셀러 1위로 뛰어올랐다.

사실 〈가을 동화〉는 《국화꽃 향기》를 상당부분 '벤치 마킹'했다. 출판사측이 출간 전에 원고를 〈가을 동화〉의 PD에게 보여줬는데, 양측의 합의하에 소설에 등장하는 '상운 폐교'나 '나무' '암환자' 등의 모티브를 〈가을 동화〉에 가져다 썼다. 요즘 독자와 시청자들 사이에는 강원도의 '상운 폐교' 방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국화꽃 향기》의 성공요인은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는 독자들의 욕구에 부응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서갑숙씨의 파격적인 성체험론이나 영화 〈거짓말〉 류의 가치관에 부담을 느낀 보수적인 독자층의 존재를 확인한 셈입니다."

《국화꽃 향기》는 현재 60만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70만~80만부는 팔리겠지만, 백만부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네마, 틴팬앨리엔터테인먼트사와 《국화꽃 향기》를 각각 영화와 음반으로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금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휴식과 편안함, 위안 같은 것들입니다. 현재 문학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대중문학입니다. 대중소설이 팔려야 본격문학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죠."

본격문학의 위축과 대중문학의 득세 현상에 대한 김환기씨의 설명이다. – 김정은 기자